

日 방위백서 11년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

한국 "일제 한반도 침탈 부정" 강력 항의

국방부 등 日 국방기관 불려 삭제·재발 방지 촉구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가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등그림을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허위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구두 및 문서로 항의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하고, 북한 리스크도 지적했다.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 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이 추가됐고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백서는 중국군과 자위대의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 관련 중일 회담 재개 사실과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신뢰 구축 조치에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은 해양에서의 예측치 못한 사태를 회피·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백악관에서 2.5km ... 美 주재 쿠바대사관 문 열여 미국 주재 쿠바대사관이 20일(현지시간) 문을 열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불과 2.5km 정도 떨어진 16번가의 쿠바 대사관 건물 앞에 빨간색, 흰색, 파란색 3색에 별 하나가 그려진 쿠바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실·국장 등 103명 승진 인사

광주시가 하반기 조직개편과 명예퇴직, 공모연수 등으로 인해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급(1명)에서 8급까지 총 103명을 21일자로 승진 의결했다.

이사관(2급)에는 이병렬 남구 부구청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부이사관(3급) 승진에 허익배 정책기획관 등을 의결했다. 시는 이번 승진 심사 기준으로 4급 이상은 업무역량과 전문성 등 능력에 중점을 뒀고, 5급 이하의 경력과 승진서열을 중시하면서 U대회 성공개최 기여 등 업무추진성과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시는 U대회 성공개최 이후 민선 6기 2년차 주요 시정현안 사업에 추진동력을 불어넣고 조직의 활력 및 심히

일할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시정발전예기여도가 높은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을 4급에서 3급으로 발탁 특별승진의결 했다. 또한 6급 이하 하위직 승진의결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승진서열을 중시하되 시 전입 1년 미만자는 광주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승진에서 제외하고, 경합이 치열한 직급과 직렬의 경우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의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했다. 시는 승진의결 대상자를 포함한 4급 이상 전보인사를 23일자로 시행하고 5급 이하의 실·국장 전보추천제, 본인 희망전보제 등을 통해 조직의 필요와 개인의 희망부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등 7월말까지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 신임 실·국장 프로필



이병렬 시민안전실장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조직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강력한 리더십과 기획을 겸비해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배로 꼽힌다. ▲광주(58) ▲호남대 행정대학원 ▲자치행정국장, 시공무원교육원장



허익배 정책기획관 성실하고 차분한 스타일로 맡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다.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진도(46세) ▲전남대 행정학과 ▲정보화담당관, 도시재생과장



김일용 문화정책실장 소탈하고 직원 상·하간 잘 어울리는 인화중시의 행정가. 다년간의 중앙 부처 근무경력이 업무 추진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흥(46) ▲전남대 경영학과 ▲문화산업과장, 행안부 민간협력과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창의적이고 전라적인 사고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획형이다. 행정에 있어 고정 관념보다는 새로운 시도로 도전하는 성격이다. ▲광주(51) ▲성균관대 행정학과 ▲정책기획관, 의회총무담당관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온화한 성품이면서도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지역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주택 행정과 도시 재생 업무의 일인자이다. ▲광주(58) ▲조선대 건축학과 석사 ▲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장



홍화성 체육지원국장 치밀하고 원칙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 직원 간 화합을 중시하며, 업무에 대한 욕심이 크다. ▲광주(58) ▲전남기계공고 ▲U대회지원과장, 광산구 자치행정국장



문범수 도시철도본부장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와 감사 능력을 겸비했다. 강한 추진력과 빠른 행정 수행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둑하다. ▲담양(54) ▲전남대, 동국대 산업대학원 ▲총리직 조사심의관실, 행사부 감사담당관실

전남도, 도민과 소통 강화 '카카오토리' 개설

도정소식 등 SNS 통해 전달

전남도는 소통을 강화하고자 '전라남도 카카오토리' (https://story.kakao.com/ch/jeollanamdo)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과 축제, 관광 등 다양한 도내 소식을 전한데 이어 카카오토리를 통해 SNS에서 도민과 만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일상의 재미있는 소재, 문화, 관광자원, 지역 특산물, 도정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카카오토리를 통해 제공하

고 개설 기념으로 '공유하기' '댓글 달기' 경품행사도 한다.

'전라남도 카카오토리' 소식을 받으면 카카오토리 친구 찾기에서 전라남도를 검색한 후 소식 받기를 누르면 된다.

조용의 전남도 대변인은 "국내 최대 SNS인 카카오토리에 전라남도의 정책과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달해 도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정 참여를 활성화 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여름휴가 섬·숲에서 보낸다

신안 증도·완도수목원 택해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후 첫 여름 휴가지로 자신의 2대 브랜드 시책과 일치하는 '섬'과 '숲'을 택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8월 초 2박3일 일정으로 휴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선지는 신안 증도와 완도수목원. 이 지사는 증도 열도라도와 완도수목원에서 1박씩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

내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운동을 펼치듯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을, 향우들을 대상으로 고향에서 휴가 즐기기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 조직이 외부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직을 알보다 충성심이 없어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승진·전보 과정에서 소위 '인사(人事) 운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igoeul Saemaeul Credit Union. It features a large graphic showing 'Member Exclusive Loan' with a maximum of 5,000 million won. Below this, it lists 'Self-employment loan' with a 1.7% interest rate. To the right, there is a 'Financial Literacy 2,500 million Early Completion Incentive Event' with a list of prizes including gold bars, cash, and various goods. The bottom of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and Sanggyeong.